

<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사람은 환경에 따라 정신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는다. 그로 인해 해야 될 일의 필요성을 아주 잊게 된다.
2. 하나님과 성령님께 할 일의 필요성을 잊지 않고, 꼭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놓아야,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게 된다.
3. 차에 탄 사람이 졸든지 자든지, 운전자만큼은 절대 졸지 말고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. 이와 같이 신앙의 사명자도, 그 일의 책임자도 절대 할 일을 행하며 가야 된다. 또한, 모두 자기 인생의 운전자로서 졸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행하며 가야 된다.